

#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초등 46만원 · 중 65만원 · 고교 72만원... 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4,957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 무상교육 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된 금액이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다.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

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잔액 소멸된다. 지원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5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

### 공정·신뢰성 향상

####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이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핵심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현장지원단을 구성,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및 기재 요령의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해 학생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S2B 청렴계약 ‘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조달 건수 4만2297건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부문서 ‘우수’  
학교 부문에는 군산명화학교·전주영성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S2B 청렴계약 표창은 기관별 S2B 이용 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을 평가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우수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 건수는 4만 2,297건으로 2022년 대비 13.8% 상승했고, 조달 금액도 527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S2B에 전북교육청터 코너를 개설해 지역 제품 우선구매에 힘써 왔고, 또 지역별 S2B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교육 실시와 분기별

실적 관리 및 우수기관 계약담당자 시상 등 S2B를 통한 공정한 계약업무 조성에 앞장서 왔다. 교육지원청 부문에서는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부문에서는 군산명화학교와 전주영성고등학교가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은 5월 2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분청을 비롯해 직속 기관, 학교 계약업무담당자들이 청렴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11일 직원들과 오찬을 나누며 대학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감 경영 간담회를 가졌다.

## 전북대 양오봉 총장, 대학 구성원과 공감 경영 간담회

### 대학 정책 공유 · 행정 전반 정책 건의 등 이어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11일 직원들과 오찬을 나누며 대학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감 경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학노동조합 주요 관계자를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이 참석,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

했다. 또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효과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도 이어졌다. 이날 직원들은 인사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유연근무 도입 등의 복지제도 확대 등에 대해 물었

고, 이에 양 총장은 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양오봉 총장은 “현장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는 직원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 자리를 만들어 한다”며 “직원 선생님들이 더욱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청년 고용 활성화 상호 지원체계 확대

### 우석대, 고교생 고용서비스 한국한방고 등과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박재광)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한방고등학교·진안군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1일 한국한방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과 박세호 한국한방고등학교장, 최영규 진안군일자리센터장을 비롯한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고졸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 확대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사업 추진 △진로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지도 △지역·산업



11일 한국한방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 한국한방고, 진안군일자리센터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정보 공유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 있다.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은 물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해 성공적인 취업 성과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 고1~2 학생 입시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고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입시설명회는 각종 입시서류를 집필한 최승후(대학교) 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대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의대 모집인원 증원과 무전공

학과 개설 등 대입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입시설명회는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 자료는 전북교육대입정보TV(전북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된다. /장은성 기자



### 찾아가는 교육협력 설명회 장수교육지원청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협력 설명회’가 11일 오후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수교육지원청 관계자, 임경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협력과장, 이시영 교육협력팀장, 장태형 소통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4년 교육협력 주요사업 공유 계획 안내 및 주요 교육협력 사업 성과 공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발전특구 및 농촌유학, 의회 관련 업무, 학부모교육, 학부모회, 거버넌스 등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영문 교육장은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소통·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코포니대학기구(AUF)의 지원을 받아 이날 글로벌 취업을 희망하는 전북대학교 학생 22명이 서울 한불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 대사관에 방문해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북대, 프랑스 글로벌 취업 지원 ‘호응’

프랑코포니대학기구 지원으로 학생들 한불상의 등 방문  
프랑스 글로벌 기업 관련 정보 습득, 진로 계획 기회 가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프랑코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코포니대학기구(AUF)의 지원을 받아 이날 글로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22명이 서울 한불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 대사관에 방문해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불상공회의소는 195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한국과 프랑스 기업의 경제 교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양국 기업 간 회의와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들은 이날 방문을 통해 프랑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채용 요건 등을 파악하는 등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대 건축학과를 비롯해 고고문화인류학과, 독일학과, 프랑스아프리카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우리 대학은 글로벌대학30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2024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전북자치도교육청, 늘봄실무사 168명 등 총 223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2024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3개 직종에 총 223명이다. 직종별로는 늘봄실무사 168명, 교육복지조정자 8명, 교육복지사 47명이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전담인력인 늘봄실무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채용 인원이 대폭 늘었다. 응시원서는 오는 22~24일 온라인교육채용누리집(https://www.educareuit. gov.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전북차

지도교육청 창조미래(별관) 1층 고역 지원실과 14개 교육지원청 원서제출지원서비스도 운영기로 했다. 채용시험은 5월 18일 1차 필기시험과 6월 15일 2차 면접을 거쳐 6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지된 시행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실무사를 배치하고, 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우수한 인력이 적기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